



더불어민주당 이혜찬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끝없는 ‘윤미향 논란’ 더민주 “사실확인 먼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오락가락 해명에 여론 악화일로
당 내부서 ‘철저한 조사’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바꿨다. 당초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의연 비판은 친일’이라는 프레임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의연의 경기 안성 위안부 쉼터 부지 구입·매각 과정 내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 및 부실 운영 의혹, 윤 당선인의 2억원대 경매 아파트 현금 구입 의혹 등을 두고 해명이 오락가락하자 여론은 달라졌다. 당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변했다.

여론 악화로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할 개혁 입법 과제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 여론을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비춰진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결과에 따른 적

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과거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자를 두고 ‘회계 부정 의혹에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의혹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씨에 의뢰해 18~19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 성인남여 1042명 참여,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내용은 알앤씨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 64.4%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회계 의혹에 관해 윤 당선자의 해명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정의연 회계 의혹에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도 57.2%가 나왔다. 반면, 윤 당선자의 해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8.2%, ‘모른다’는 응답은 17.4%로 나타났다. 회계 부정 의혹에 ‘윤 당선자가 사퇴할 정도가 아니다’는 응답도 27.1%였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5.7%로 조사됐다.

특히 전 연령대에 걸쳐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가 사퇴 의견이 64.3%(사퇴 반대 24.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60세 이상(사퇴 58.5%, 사퇴 반대 25.2%), 50대(사퇴 57.6%, 사퇴 반대 31.3%), 18세 이상 20대(사퇴 55.9%, 사퇴 반대 15.1%), 40대(사퇴 50.2%, 사퇴 반대 38.9%) 순으로 윤 당선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숙명여대, BRIDGE+ 사업 선정... 30억 지원

기업가적 대학모델 구축 목적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이하 브릿지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3년간 연간 10억원씩, 총 약 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브릿지 사업은 대학 보유 특허, 노하우, 콘텐츠 등의 인문·이공 창의적 자산을 기반으로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촉진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하고 기업가적 대학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숙명여대 성과전시회 /숙명여대

숙명여대는 인문·이공 융복합을 통한 산학협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내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기간 중 2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총 13억원의 기술료 수입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ihj@

경선 대신 ‘합의추대’... 박병석 사실상 확정

(6선, 대전 서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

**경선 결정시 다투는 모양새 우려
김진표 의원 경선 불출마 입장
후보 단일화 당내 여론 의식행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국회의장단 경선 대신 ‘합의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단 선거를 경선으로 결정하면 다투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당 내부의 우려 때문이다.

특히 4월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5월 국회의장단 경선, 8월 전당대회 등 당의 굵직한 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자리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이는 거대 여당에 걸맞게 21대 국회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지를 통해 “제21대 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에 박병석 의원, 국회 부의장 후보에 김상희 의원이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25일 당선인 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박병석(6선, 대전 서갑) 의원이 사실상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추대될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사실상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것으로 보인다. 관례로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몫이기 때문이다.

부의장 역시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73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 김상희(4선, 경기 부천 소사)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출마를 예고한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으로 ‘합의 추대’ 분위기에 화답했다. 김진표(5선, 경기 수원 무) 의원은 20일 의장 경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전날(19일) 박 의원과 회동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추대’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대신 후보 단일화하기로 한 것은

당내 여론에 대해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부의장 후보로 거론된 변재일(5선, 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19일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김상희 의원이 15일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의장단에 여성 대표자가 없었다”며 부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지지 선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자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 1석을 두고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으로 추대하는 분위기다. 경쟁자로 꼽히는 서병수(5선, 부산 부산진갑) 의원이 13일 국회부의장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또 다른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5선, 부산 사하을) 의원은 당대표 도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부 의장에 도전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영훈 기자

軍, ‘부부의 날’ 맞아 육·해·공 군인가족 미담 소개

군 생활·인생 동반자로 서로 격려

육·해·공군은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해·공군 부부들이 함께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족들의 미담을 20일 소개했다.

육군훈련소 김현규 상사(진)·(27·남편)와 김나영 상사(진)·(27·아내)는 2018년 부부의 연을 맺고 신병훈련소 대장으로 함께 정병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훈련부사관이다. 훈련부사관은 체력, 군사교육, 근무평정이 우수한 중·상사급 부사관을 선발하기 때문에 부사관의 꽃이라 불린다.

서로를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부부는 군 생활과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모든 훈련부사관들이 선망하는 ‘올해의 훈련부사관’으로 부부가 동시에 선정돼 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군 군수사령부에는 무려 50쌍의



서종철 중령과 김미정 중령이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을 함께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

군무원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군수사는 20일 두 사람(2)이 하나(1)가 된 것을 기념하는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부대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 부부들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참석한 부부들은 ‘덕분에입니다’라는 글자를 새긴 비석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나누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헌신한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공군에는 부대 의무분야 지휘관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임무 적극 수행하는 부부가 있다. 지난 2월부터 약 3개

월간 만나지도 못한 채 각자의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제10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 서종철 중령(43)과 제11전투비행단 항공의무전대장 김미정 중령(42)이 주인공이다.

의무특기인 두 사람은 2003년 결혼 후, 약 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약 3개월간 떨어져 지내다 휴가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난 5월 초가 되어서야 만날 수 있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순천향대, 교내식당 2곳 푸드코트 개편

7개 프랜차이즈로 운영

순천향대가 종전에 운영하던 교내식당 두 곳의 인테리어를 백화점식 ‘푸드코트’로 개편하고, 다양한 메뉴를 입점시키는 등 학생들의 ‘먹는 즐거움’을 위한 변신에 나섰다.

20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순천향대가 최근 추진한 학식 개선 포인트는 푸드코트 스타일과 다양한 신상 메뉴에 있다. 교내 학생회관과 향설2관 식당 2개소를 푸드코트로 개편해 7개 프랜차이즈로 운영한다.

지금까지 한식뷔페, 라면, 덮밥 등

단순 메뉴에서 ▲에그샐러드 ▲만권화밥 ▲HAZBEN ▲홍대쌀국수 브랜드가 학생회관에 ▲크양분식 ▲시골집해장국 ▲중앙갈국수 등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향설생활 2관내에 배치시켰다. 전체 7개 코너에 20가지 신상 메뉴를 확대하면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1~2개의 브랜드를 추가적으로 입점시킬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현진 기자